

출판계 움직임

문공부 추천도서 119種 선정

문화공보부는 87년도 제20회 '추천도서'로 119종 265권을 선정, 3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문학이 29종, 사회과학이 20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종교·철학 14종, 아동도서 14종, 과학기술 13종, 역사 12종, 예술 10종, 총류 6종, 만화 1종이다.

한편 3종 이상 선정된 출판사는 民音社, 文學과 知性社, 一志社, 나남, 曙光社, 悅話堂 등이다. 이번 문공부 추천도서 선정에는 모두 1,046종(1,872권)의 도서가 신청됐었다. (선정목록은 다음호에)

제22회 '잡지의 날' 기념식

제22회 '잡지의 날'(11월 1일) 기념식이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李雄熙 문공부장관, 鄭漢謨 문예진흥원장, 林仁圭 출혈회장을 비롯한 500여명의 잡지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趙宇濟씨(월간 「진학」발행인)가 문화훈장을 받은 것을 비롯, 7명의 잡지발행인들이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許光洙(뮤직라이프)

◇문공부장관 표창=辛章煥(양봉계)/裴鍾大(영유구락부)/朴來永(전기전자계)/李澤寧(전자과학)/洪裕秀(코리아 리쿠르트)/南長祐(한국잡지협회 사업부장)

'진명의 빛' 등행대회

도서총판 진명서적(대표 최선호)은 제2회 '진명의 빛' 등행대회를 11월 8일 북한산에서 갖는다.

출판계와 서적계의 친목을 위해 한국출판인산악회(회장 許昌成)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등행대회는 3-5인을 1조로 하는 단체경기로 벌어지는데, 우승팀에는 각종 시상제가 따른다. 문의처는 272-5871-6.

金承煥씨, '에이전시' 개설

三省出版社의 편집상무와 東京사무소장을 지낸 金承煥씨가 지난달 '한국 이데아 프로덕션'을 개설했

'새 登録法案에 毒素조항 많다'

출판계서 반발... 취소·폐기 촉구聲明

출판계는 지난 10월30일 국회 문공위를 통과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 이의 취소 또는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韓萬年(일조각) 金聖哉(일지사) 朴孟浩(민음사) 金炳翼(문학과학사) 金潤洙(창작사) 田炳哲(문예출판사) 尹炯斗(범우사) 金京熙(지식산업사) 金彥鎬(한길사) 李起雄(열화당) 金鎭洪(전예원) 金鍾洙(한울) 趙根台(현암사) 崔同田(동광출판사) 趙相浩(나남) 崔玉子(명서각)씨 등 출판사대표 50여명은 5일 연명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출판법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크게 개악한 것으로서 이 시대의 민주화작업과도 명백히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출판의 기능 및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커녕 이를 악의적으로 규제·탄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개정안의 취소·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출판인들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①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4조 5항)나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6항)는 출판사의 경영자 또는 편집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강제규정을 둬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②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거나 청소년에 유해한 도서를 출판했다거나 또는 출판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이 출판사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게(제9조) 함으로써 출판사의 영업정지를 사법부의 판결이 아닌 행정부의 자의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개정법률안이 ③ 출판사의 편집·업무분야 간부들의 취업·이직 동태까지 일일이 관계기관에 보고하게 하여(제13조) 출판사를 궁극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는가 하면, ④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영자와 편집책임자의 등록을 변경토록 요구(부칙

제2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소급처벌을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밖에도 이번 개정법률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일일이 指示하고, "출판 입법은 출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표명, 새로운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출판진흥정책 및 새로운 출판觀의 정립을 당국에 촉구했다.

出版協會서도 修正 건의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林仁圭)도 5일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유보 또는 수정해줄 것을 국회 법사위원장과 문공위원장에게 건의했다.

건의문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현행법에도 없는 여러가지 규제적 조항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법개정의 취지와 목적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고 말하고 ① 출판사 경영자 또는 편집자의 결격사유 중 일부 조항과 ② 영업정지제도와 등록취소 요건의 일부를 삭제해줄 것, ③ 업무책임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해줄 것, ④ 벌칙을 완화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다. 명예회장은 金奉圭 삼성출판사 회장.

'한국 이데아 프로덕션'은 앞으로 외국과의 저작권계약 알선, 출판물의 외국과의 공동출판 주선업무 외에 출판기획·편집의 대행과 출판용 필름라이브러리도 운영한다. 주소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빌딩 302호(전화 730-8101. FAX 739-0407).

월간「現代」창간

시사종합교양지 월간 「現代」가 '시대를 앞서가는 현대인의 잡지'를 표방, 政文硏究會 발행으로 이번 달 창간됐다. 발행인은 李敬南씨.

창간호인 11월호 특집으로는 6.29 선언 이후 쏟아져 나온 각종 지하신문과 급진구호를 집중분석한 申相楚의 「革命놀이냐, 共產黨이냐」를 비롯, 李鍾贊의원의 「盧泰愚 美·日 방문 수행기」, 李路의 「金泳三 대 金大中, 막판승부의 秘策」 등을 실

었다. 그밖에 「분단문화의 극복을 위하여」를 기획특집으로 꾸몄고, 월북작가 李泰俊이 북한 탈출을 기도했다는 새로운 秘話를 발굴, 게재했다.

汎友社 독후감 입상자 시상

범우사(대표 尹炯斗)는 창업 21주년 기념으로 모집한 '300만원 현상' 독후감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10월 31일 가졌다.

입상자는 국민학생부에 전현정(금상·전남 영암군 용당국교 5년) 외 5명, 중학생부에 유운정(금상·서울 동구여중 3) 외 5명, 고등학생부에 이경순(은상·서울 창문여고 2) 외 5명, 대학·일반부에 우현용(금상·서울 동대문구 망우3동 474~18) 외 8명이다.

寫植協, 매주 교양강좌 가져

한국사신식자협회(회장 이환옥)는 지난달 21일 기술분과이사 간담회에서, 기술연수생을 위한 교양강

좌를 매주 실시키로 결정했다.

동 협회는 또, 현직에 있는 오피레이터들의 기술향상과 사기양상을 위해 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책의 날' 기념 각종 圖書展 끝내

올해 '책의 날'(10월11일) 제정을 기념하는 특별기획도서전과 연합도서축제가 10월24일~11월2일까지 성황리에 끝났다.

출협이 주최한 특별기획전은 '한국출판문화 1300년'을 주제로 교보문고 전시장에서 열렸다. 한편 연합도서축제는 교보문고, 종로서적, 중앙도서전시관, 신촌문고, 을지서적, 동화서적, 국민도서 등 서울 시내 7개 대형서점이 참가했다.

自由文庫 사무실 이전

도서출판 自由文庫(대표 李俊寧)는 10월25일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새 주소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12-2(전화 715-8982).

韓國社會學 (21집)

韓國社會學會 발행

(연구논문)

△막스베버에 있어서 종교와 여타 사회제도간의 관계(梁永鎭)/△김멜의 사회이론(金姬)/△사회연결망 분석의 이론들: 구조와 행위의 연결을 중심으로(金用學)/△지역주의가 한국사회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민의 출신지역별 지위획득과 사회이동을 중심으로(車鍾午)/△재미교포 노년층의 건강·적응·주관적 복지: 결정요인으로서의 개인적·관계적 자원(朴在興)/△한국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韓相震)/△조직의 통제체제와 현상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생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金成國)/△폭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裴東寅)/△이촌과 친족의 변화: 한 촌락사회에서의 사례연구(崔在錫)/△과소비의 사회학적 고찰(金文朝)

韓國學報 (제48집)

87년 가을호.

「新羅시대의 氏族·리니지의 存否문제」(崔在錫) 「高麗太祖代의 尙軍部에 대하여」(鄭景鉉) 「世祖朝 音樂업적의 역사적 조명」(宋芳松) 「고려국조신화 「高麗世系」에 대한 신고찰」(李康沃) 「蘭雪軒의 廣寒殿白玉樓上樓文」 木版本에 대하여」(許米子) 「1930년대 리얼리즘 소설의 성격」(韓亨九) 「한국 경향소설과 「귀향」의 의미」(徐經錫) 등 7편의 논문 외에 자료로서 大阪天王寺 공원 독립운동 관계 「大阪毎日新聞」 기사(해제 김윤식)를 실었다. (一志社/A5판/195면/3500원)

에너지 R&D 87년 가을호

「연탄공장에 있어서 최적 구분저탄에 관한 연구」(최익수·김종욱) 「괴량의 물이 존재하는 용액내에서의 CaCl₂·6H₂O 결정화 특성 연구」(한성욱 외) 등 5편의 연구논문과 「메탄올의 수증기 거칠반응에 미치는 조업변수의 영향」 등 2편의 연구보고를 수록했다. 이밖에 기술분석보고, 법령홍보자료 등을 실고 있다. (한국동력자원연구소/B5판/30면/비매품)